

방유룡 신부의 수덕(修德)교육

최 영 희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방유룡 신부의 수덕교육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인다운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므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성경에 근거하여 하느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덕, 즉 대신덕인 신덕, 망덕, 애덕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초자연 덕, 향주삼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인간이 윤리생활을 바르게 영위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윤리덕, 즉 대표적으로 사주덕인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자연 덕이라고도 한다. 물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덕이 있다.

이러한 덕들은 완덕을 추구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완덕은 그리스도를 그 완성과 목표로 바라보면서 이웃에게도 애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완덕이 저절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덕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유룡 신부의 수덕론에 입각하여, 완덕으로 가는 길로서의 침묵을 논하게 되는 수덕교육이 될 것이다. 침묵에는 외적침묵, 내적침묵 그리고 영혼침묵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수덕교육이 있어야 한다. 수덕교육은 종교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핵심 주제어 : 침묵, 완덕, 초자연 덕, 윤리 덕, 수덕, 덕목

I. 여는 말

인간의 존엄성은 참으로 귀중하다. 성경의 창세기(창세 1,26-28 참조)에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리셨으며, 또한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

스리게 하셨다고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그 영적기원을 가지므로 인간이면 누구나 다 존엄하고 마땅히 복 받은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뻐지거나 존경스러운 덕 등이 풍겨나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슬퍼지거나 불편하여 피하고 싶다는 부정적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심리적으로 다양한 양상의 인간상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떤 품성을 지닌 인간이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 것이다. 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리고 성스러운 사람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존엄성을 키우고, 만들고, 계발해야 하는 과제가 함께 부여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데 있다고 가톨릭교회 교리에서 말하고 있다. 이는 죄와 사육에 눌린 묵은 나를 없애고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완벽과는 다른 차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을 만들고, 기르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다양한 길(과정)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일생을 수덕(修德)에 전념했던 방 유룡 안드레아 신부(1900-1986, 이하 방 신부로 칭함)의 가르침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방 신부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중심 사상은 필자가 이미 ‘순교의 맥’ 제202호(2005년)에 수록했고, 특히 방 신부가 이해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9호(2007년)에 발표했다. 이번의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수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덕은 일회적인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항상적(恒常的) 능력으로 키워져야 하므로 수덕교육이 동반될 것이다.

방 신부는 완덕으로 가는 길을 침묵에서 찾고 있다. 침묵은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영혼침묵에 대해서는 이성과 의지를 말하고 있다. “하느님을 뵈옵고 그 분과 합일하기 위한 삶에서는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일 수 있다.”¹⁾ 침묵을 배울 사람은 수덕을 하는데 장애물을 없애는데 침묵이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자연 덕과 윤리덕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방 신부가 필설하는 침묵의 덕을 거치면서 도달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침묵은 자기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수덕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하느님을 닮으려고 수덕 생활에 깊게 그리고 높게 들어 간 사람일수록 그 인간성도 깊어지고 높아져 완전한 사람, 곧 덕망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1) 이숙자, 『면형무아의 길』, (서울: 도서출판 순교의 맥, 2006년), 127쪽.

II. 수덕(修德)의 어원과 덕목

어떻게 하면 덕망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성이 완성되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덕으로 충만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고 했듯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하느님을 본받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사(sacramentum, 聖事)생활과 함께 자기완성을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적 덕을 실행해야 하고, 완덕(完德)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견지에서 덕과 악습을 제시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인간 상호간에도 일치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이 일치를 위하여 도덕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성경에 있어서의 덕의 문제가 생긴다.²⁾ 덕으로 진보하려면 덕을 닦는 과정으로써의 수덕(修德)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수덕이라는 어원이 어디에서 흘러 나왔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 수덕의 어원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하고 영성생활의 성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적자세를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과 정화의 노력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여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덕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³⁾

‘수덕’이라는 용어는 희랍어 동사인 아스케인(askein)에서 오는 말인데 ‘훈련시키다’, ‘연습하다’, ‘애쓰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동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루카는 바오로가 체사레아에서 재판받을 때 펠릭스 총독에게 하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씁니다(asko).”(사도 24,16) 이것은 구약성경 지혜서의 사상이 반영되어 여러 곳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바오로의 글에는 다른 희랍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의미가 나오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코린토 1서에서 바오로는 달리기 선수의 훈련과 자신이 실천하는 단련을 비교한다.⁴⁾ “나는 목표가 없는 것

2) Lacan, M. F., *Vocabulaire de theologie biblique*, 김영환 편, 『덕과 악습』, 『성서신학사전』, (광주: 광주가톨릭대학전망편집부, 1984), 116쪽.

3) Charles A. B., *Teologia spirituale*, 정제천, 박일 옮김, 『영성신학』,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45쪽.

4) Ames, A. W., 『The body in spiritual practice: a new asceticism』, *spiritual life*, 47, 2001, winter,

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1코린 9, 26)

어원학적으로 수덕(修德, askesis)이란 용어는 희랍어 명사(askesis)인 연습, 훈련을 뜻하며 육체적 훈련이나 철학적 성찰에 적용된다. 그러나 후에 이 말은 윤리 및 신앙생활에서 진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인간이 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출발하므로 모든 영성은 수덕과 수덕적 생활을 다룬다.⁵⁾

영어의 asceticism은 희랍어askein, asko에서 온 말로서 수련, 금욕에 대한 노력의 뜻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적 완덕에 이르는데 필요한 노력을 연구 수련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수덕방법이다. 수덕 수련은 극기가 필요하다. 극기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금욕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느님과 일치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덕의 의미가 있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의 수덕은 더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 및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수덕은 ‘그리스도교적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스도교적 수덕의 특징을 제시하는 칼 라니(K. Rahner)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⁶⁾

a) 윤리적 수덕: 인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들 사이에 하나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훈련과 절제로 중용의 덕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수덕의 이러한 형태는 윤리적 수덕의 차원이지만, 그리스도교적 수덕은 그리스도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므로 훨씬 더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b) 종교 의식적 수덕: 다양한 종교들이 그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절제와 포기를 의미한다.

c) 신비적 수덕: 다양한 종류의 절제를 통하여 인간은 신적체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적 이해에서는 신비적 체험에 수덕의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가 체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체험은 선물(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노력과 훈련과 투쟁에 대해 말하고 있다.(1코린 9,24-27; 필리 3,13-14; 2티모 2,22-25 그리고 4,7-8 등) 결국 신약성경에서의 수덕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는데 있으며, 그 수덕의 핵심은 신덕(信德, 믿음), 망덕(望德, 희망), 애덕(愛德, 사랑)의 기본 형태 안에 내포되어 있다.

pp.200-215: 백민관 엮음, 『Asceticism』,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백과사전(1)』,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201쪽.

5) 앞의 책, 정제천, 박일 옮김, 45쪽.

6) Josef Weismayer, *Zur geschichte und theologie christlicher spiritualitat*, 전현호 옮김, 『넉넉함 가운데서의 삶-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와 신학』(왜관: 분도출판사, 2003), 289-290쪽.

2. 덕의 종류: 수덕의 내용

수덕은 그리스도께 보다 가까이 가려는 노력으로써 완덕(完德)의 길을 닦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적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덕이어야 하므로 다음의 설명에서 분명해진다.⁷⁾

a)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차원은 수덕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독서, 묵상, 기도 신비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b)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차원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 곧 수덕이 필요하다. 이웃사랑의 실천에 따르는 수고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노력이 없이는 익힐 수 없는 것이다. c)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수덕 없이는 완수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이다. 이 세상 안에서의 삶, 하느님 앞에서 책임감을 지는 것으로서의 과제들을 수용하는 것은 노동, 탐구, 공부, 투신 등의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적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덕들을 닦아야 하는 노력 및 훈련이 필요하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에 의하면 단 한 번의 어떤 덕의 습성을 낳기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 번의 행위로는 수동적 저항력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덕은 어떤 능력을 완전하게 만든다. 능력은 행위에 규범을 가지게 될 때 완전하다. 행위의 규범은 습성이다. 어떤 행위의 반복은 습성으로 이끈다. 따라서 덕은 하나의 습성이다. 덕의 주체는 능력이고 덕들은 바로 능력들의 완성이다. 인간 고유의 능력을 완전하게 만드는 작용적 능력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넘는 최종목적 즉 영생(永生)에 관계되는 행위들에 관한 한 그에 상응하는 습성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입될 수밖에 없다.⁸⁾

하느님으로부터 주입된 덕을 초자연 덕, 즉 주부덕(注賦德)이라고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덕을 윤리덕 혹은 자연 덕, 즉 수득덕(修得德)이라고 한다.

1) 초자연 덕

초자연 덕은 성화은총과 함께 하느님이 주입하는 것으로서 능력에 더해진 습성이므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보다 높은 능력까지 끌어올려 초자연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 이는 인간의 자질을 고양(高揚)시키는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concilium tridentinum)는 의화(義化)에 필요한 믿음, 희망, 사랑을 하느님에 의한 주입덕이라고 했다.⁹⁾ 주입덕인 초자연 덕은 대신덕(對神德)이라고 하여 인간이 하느님과 갖는 기본관계의 덕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능력이며, 하느님을

7) 위의 책, 307쪽.

8) Dal Sasso Coggi, *Compendio della somma teologica di san Tommaso d' Aquino*, 이재룡, 이동익, 조규만 옮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167-169쪽.

9) Denzinger Scho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Barcelona, Herder, 1973), p.1530.

직접대상으로 하고, 하느님께 나아가기위해서 필요한 덕이다. 덕의 직접적인 대상이 하느님과 신적 완덕이라면 그 덕은 대신덕이다. 대신덕을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서간성경에서 이 세 가지 덕의 가치를 강조할뿐만아니라 자주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1테살 1,3)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는 이 세 가지 덕을 다른 모든 덕들보다 우위에 놓는다. 가톨릭교회는 이 세 가지 대신덕들을 전통적으로 고수하여 가르쳐왔다.¹⁰⁾ 이 세 가지 덕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 넣어주신 은총(로마 5,2-5)이라고 해서 주부덕이라고도 한다. 이 은총으로 인간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 덕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생활을 하는데 있어 바른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다. 즉 대신덕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느님의 증인이 된다. 믿음, 희망, 사랑이 인간의 내적 종교생활을 위한 원리와 같은 덕들임에는 틀림없다.¹¹⁾ 특히 세 가지 덕은 하느님을 향하여 있으므로 향주삼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성생활의 본질은 오직 향주덕의 생활에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향주덕의 대상이 명백히 하느님 자신이므로 향주덕의 생활은 하느님 안에서의 생활이다. 신학은 인간 생활의 유일한 구체적인 목적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이성애 새겨진 무한한 활력이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향주덕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신적인 실재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그 덕의 실천이 충만한 빛과 사랑을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인간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¹²⁾ 그러므로 인간은 향주덕을 통하여 하느님의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신뢰, 사랑의 인격적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인격적 응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은 은 향주덕을 담당하는 영적이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인격적 응답은 인간의 이중적 차원에 상응하여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째, 능동적인 차원인데, 인간은 자신의 활동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외적인 활동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둘째, 수동적 차원인데, 인간은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하여 내적으로 응답한다. 이것은 기도의 고유 분야이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신적인 움직임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을 하지만, 기도의 열매는 자신의 활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¹³⁾ 이 때 수득덕이 주부덕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꾸준한 수덕으로 초자연적인 지위에 올려진다.

인간은 초자연 지위에 올려지고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면 초자연적 능력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혼과 능력이 자연적 능력에 속

10) K. H. Peschke, *Christian ethics-moral theology in the light of Vatican II*, 김창훈 옮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왜관, 분도출판사, 1992), 26-27쪽.

11) 위의 책, 제1권, 450쪽.

12) 정제천, 박일 옮김, 앞의 책, 3631-362쪽.

13) 위의 책, 517쪽.

한다면 성화은총과 주입덕은 초자연적 영역에 속한다. 이는 영혼의 자연적 성향과 능력에 조화를 이루는 초자연적 성향과 능력이 주입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향과 능력 자체는 행동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초자연으로나 자연적으로 실천을 통하여 더욱 개발되어야 하며 덕으로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이성을 획득해야한다.¹⁴⁾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수덕이라는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덕은 초자연적 목적을 향해 정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확실하고 옳게 평가되어야한다. 이러한 설명에서 인간행위 즉 윤리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윤리덕을 인식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윤리덕

윤리덕은 주입된 덕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연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윤리덕에는 여러 종류의 덕이 있지만 사추덕(四樞德)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덕의 직접적인 대상이 하느님과 신적 완덕이라면 그 덕은 대신덕이고, 인간 존재와 창조된 질서에 속한 실재성들이라면 윤리덕이라고 한다. 윤리덕 중에는 고대로부터 선택된 네 가지 중요하고 기초적인 덕들로서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이다. 이 덕들은 그리스 철학-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된 것이며, 구약성경의 지혜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지혜 8,7) 성 암브로시오(St. Ambrosius)는 이 네 가지 덕에 사추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¹⁵⁾

사추덕은 지덕(智德, prudence), 의덕(義德, justice), 용덕(勇德, force), 절덕(節德, temperance)이며 영혼의 윤리적 능력을 완성시킨다. 다시 말해 사추덕은 이성의 규범에 지혜, 의지의 규범에 정의, 탐욕적 욕구의 규범에 절제, 분노의 규범에 용기라고 한다.¹⁶⁾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기초적인 덕들인 겸손, 순종, 감사, 형제애 등과 같은 덕들은 이 사추덕 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추덕의 체계는 다른 덕들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해링(B. Haring)에 의하면 겸손은 전형적인 그리스도교적인 덕으로서 사추덕에 이어 다섯 번째 주요덕(樞要德)이라고 한다.¹⁷⁾

그렇더라도 윤리덕인 사추덕은 인간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에 응답해야 할 내용이 다 음과 같이 있다.¹⁸⁾

(1) 현명: 현명함은 영혼의 경솔한 정신과 판단, 또는 서두름을 피하기 위하여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동기로 행동하는가를 자문해야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몇 가지를 새겨야 한다.

첫째, 순결은 마음과 육체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영원한 지혜에 도달하

14) K. H. Peschke, 앞의 책 제1권, 446-447쪽.

15) 위의 책, 450쪽.

16) Dal Sasso Coggi, 앞의 책, 173쪽.

17) B. Haring, *The law of christ*, vol. 1, (Westminster: The Newman Press, 1966), pp.546-547.

18) A. Tanqueray, *Precis de theologie ascétique et mystique*, 정대식 옮김, 『수덕신비신학 4권』, (서울: 가톨릭 크리스찬), 2000, 65-85쪽.

도록 한다. 둘째, 평화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침착함으로 평온을 지켜야 한다. 셋째, 조심성은 이웃에게 양보와 친절로 논쟁을 부르는 분노를 피해야 한다. 넷째, 자비와 선행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충만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행을 실천한다. 이러한 것은 편견과 위선이 없어야 현명한 덕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정의: 정의는 이웃에게 끊임없이 실행해야 할 진리이다. 각 개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정의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근절시키면서 이웃에 대한 경솔한 판단을 피하고,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덕들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3) 용기: 용기는 강인함과 견고한 성품으로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는 행위이고 지성에 의해 정제되어야 한다. 용기를 실천하려면 먼저 어려움에 투신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용기와 연결된 덕은 첫째, 아량인데, 이는 무사무욕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둘째, 관대함인데, 이는 너그러운 마음이며 하느님의 섭리로 알고 헌신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인색과 낭비이다. 셋째, 인내인데, 이는 육체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영혼을 유지하여 하느님을 위한 사랑을 낳게 한다. 그러나 인내의 반대는 불평과 투정으로써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져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내에는 세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의 단계에는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열성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성화(聖化)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항구심인데, 이는 무기력, 안일, 실망 등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과 싸우는 끈기를 말한다. 또한 우리의 노력을 완성시키는 보상에 대해 신념을 갖는 것이다. 끈기는 기도를 통하여 획득될 수 있으므로 항구하게 청원하는 자세이어야 한다.

(4) 절제: 절제는 하느님으로부터 쉽게 돌아서게 하는 감각적인 쾌락의 성향을 절제하는 데 필요한 덕이다. 그리고 절제의 덕은 겸손과 온유의 덕에 연결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추덕은 다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본래적인 덕이다. 이외에 더 다양한 덕이 있지만 그 중에 복음적 권고인 복음삼덕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도자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청빈 덕, 정결 덕, 순명 덕이 있다.(지면관계상 약한다.) 이러한 덕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은사(恩賜)라는 은혜가 개입되어야만 한다.

3. 덕에 대한 은사의 역할

은사라는 말은 희랍어로 카리스마(charisma)인데 은총(恩寵)의 뜻을 지닌 카리스(charis)라는 명사와 어원을 같이한다. 은사, 즉 카리스마는 무상의 선물, 호의, 은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교회헌장 12항 참조) “은사는 하느님께서로부터 거저 받은 무상은총(無償恩寵),

인류행복의 촉진과 공공이익을 위해 주는 특별한 능력의 은총이다.”¹⁹⁾

은사를 넓은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아낌없는 모든 은총이 다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은사개념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 주시는 몇몇 특별한 은혜를 말한다.²⁰⁾ 모든 은총은 하느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철저히 그 분의 주 도아래 선사된다. 인간은 이를 무상의 선물로 받을 뿐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선사하실 때 일방적이거나 기계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창세 1,26-27 참조)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다. 당신의 은총을 아낌없이 선사하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 자신의 응답과 참여와 노력을 기다리는 하느님이시다.²¹⁾ 물론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노력으로써의 수덕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

영혼 안에 있는 초자연적 생명을 작용시키고 발육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요구된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주입덕과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의 자연적 능력으로는 자연적 행동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행동을 하려면 초자연적 능력인 주입적 덕행을 통하여 우리의 자연적 능력이 완전하고 신적인 능력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주입적 습성은 자연적 상태에서 초자연적 상태로 높여주고 초자연적인 행동에 그 도움을 준다. 주입적 습성은 주입적 덕행을 통하여 도움의 은총에 협력해야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작용에 순응하게 된다. 따라서 주입덕인 대신덕과 윤리덕을 꾸준히 실천하는 영혼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는 자가 되고 초자연적 순응성을 얻게 된다. ‘초자연적 관습들은 바로 은사와 덕의 실천에 있다.’²²⁾ 초자연적 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얻는 수덕적 습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하느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가치들에 찬동한다는 일”²³⁾은 필연적으로 수덕에 힘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입적 덕행이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초자연화 시키는가를 살펴보자.²⁴⁾

주입적 덕행의 대신덕인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실질적인 대상으로 대하게한다. 믿음은 최고의 진리인 하느님께 우리를 일치시키고 신적 빛으로 만사를 보고 평가하도록 도와준다. 희망은 인간의 행복과 성화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게 한다.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자녀적인 헌신적 행위를 도와주고자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 준다. 사랑은 인간을 최고의 선인 하느님께 들어올린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영원한 완덕에 동화된 것처럼 만족하고, 하느님과 거룩한 우정, 감미로운 친분을 맺게 하여 더욱 더 그분을 닮게 한다. 그러므로

19) 백민관, 『Charisma』, 앞의 책, 563쪽.

20) 박준양, 『성령론-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 (서울, 생활성서사, 2007), 59쪽.

21) 박준양, 『은총론-그 고귀한 선물에 관하여』, (서울: 생활성서사, 2008), 75쪽.

22) A. Tanquerey, 앞의 책 1권, 131-134쪽.

23) A. Nolan, *Jesus before christianity*,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0), 88쪽.

24) A. Tanquerey, 앞의 책 1권, 134-135쪽.

이 세 가지 대신덕은 인간을 하느님께로 일치시킨다.

그렇더라도 인간은 대신덕으로 인해 초자연적 행위를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덕적 습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윤리덕인 사추덕은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데 영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간의 행위를 잘 조정시켜 내적, 외적에 있는 장애들을 제거하여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향하게 한다. 현명의 덕은 인간으로 하여금 초자연적 목적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정의의 덕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 줄 것을 돌려주게 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과 같이 이웃과의 관계를 성화시킨다. 용기의 덕은 시련에 견딜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내와 고통을 참으며 거룩한 대담성으로 무장한다. 절제의 덕은 불륜적 쾌락을 제어하고 해야 할 의무에 종속시킨다.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윤리덕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물리치고,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제공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신덕과 윤리덕은 성령의 은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성령은 하느님께서 당신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자기전달 행위의 직접적 원리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체가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의 무한한 실재요 신비이지만, 이러한 비가시적인 하느님의 실재를 우리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표지요 선물(은사)이 바로 성령이다.²⁵⁾ 영혼 안에 활동하는 능력을 고려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지성적 은사와 정감적 은사로 나눌 수 있다. 지성적 은사는 지능을 밝히는 것으로서 지식, 통찰, 지혜, 의견이고, 정감적 은사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공경, 용기, 경외라고 할 수 있다.²⁶⁾ 신약 성경(갈라 5,19-23)에서는 성령의 열매인 은사에 대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를 들고 있으나,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 육의 행실은 방탕,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고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는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여 자유롭게 발현되기를, 그래서 성령이 점차 우리의 사고, 언어, 행동의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인 본성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은총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²⁷⁾ 영혼은 성령의 은사가 주는 신적 유연성을 얻기 위해 현명, 겸손, 온유, 사랑 등의 습관 된 덕으로 악과 걱정을 억제시켜야 한다. 영혼이 교만, 불순종, 성냄, 시기 등으로 동요될 때 어떻게 은총의 영감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25) 박준양, 『성령론-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 21쪽.

26) A. Tanquerey, 앞의 책 5권, 47-48쪽.

27) Andrea Gasparino, *Lord, teach us how to pray*, (Cuneo: Movimento Contemprativo Missionario), p.36.

유순하게 그 은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작용아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따라야 한다.²⁸⁾

인간은 성령으로 확립된 상태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타락시킬 위험이 계속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흔적 때문이다. 따라서 수덕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덕의 실천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생 동안의 수덕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방 신부가 완덕을 추구한 수도자(修道者)로서 그가 제시하는 수덕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의 완덕에 이르는 수덕교육

인간은 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향과 능력을 제공해준다. ‘알지 못하면 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같이 우선 덕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몫이다. 교육은 진정한 지식을 알게 한 후에,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의 자기화라는 습성을 키우기 위해 서는 수덕이라는 문제를 정성스럽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수덕을 다루는 것은 인간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위한 계획에 대한 실현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인간 행동 그 자체의 계획적인 변화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인간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덕의 목적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완덕이라고 할 수 있다.

1. 완덕(完德)의 본 의미

완덕의 의미는 성경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고 말했다. 복음사가 마태오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두 곳에서 사용한다.(마태 5,48; 19,21) 그는 이것으로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 응답을 나타낸다. 인간의 응답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일치를 이룰 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본다.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

신학자의 대부분은 사랑, 즉 “애덕을 완덕의 형식적 요소”²⁹⁾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

28) A. Tanquerey, 앞의 책, 42-43쪽.

29) 전달수, 『완덕』,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왜관: 분도출판사, 2002), 6510쪽.

람 안에 머무르십니다...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1요한 4,16; 19)라는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성 바오로도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끈입니다.”(콜로 3,14)라고 하면서 애덕이 완덕의 끈임을 확인하였다. 이 완덕의 끈은 이웃에게까지 연결되어야 완전하다. 즉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콜로 3,20-21) 이렇게 완덕은 근본적으로 애덕에 있는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애덕에 있다는 것이 완덕의 본 의미이다. “완덕의 끈이며 율법의 완성인 애덕은 모든 성화(聖化)의 수단을 지배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³⁰⁾ 그런데 애덕은 단순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과정이 있어야 완덕을 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완덕의 단계가 있게 된다.

완덕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노력정도에 따라 도달하는 단계에 차이가 난다.³¹⁾

(1) 첫째 단계는 초보자로서 애덕을 직접적으로 거슬리는 모든 대죄를 피하는 상태이다.

(2) 둘째 단계는 진보자로서 완전히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적 애착에서 연유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3) 셋째는 완덕자로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단계이다. 완덕은 사랑에 의해 하느님과 합일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영성생활의 단계적 발전은 인간이 이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완덕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갈수록 완덕의 보다 많은 보화를 습득한다는 것이며, 또한 갈수록 유덕(有德)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 발달은 덕의 습성을 많이 획득한다는 말이며, 더 불어 특정한 덕목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결국 그 행위를 하는 지속적인 성향과 용이성을 습득하게 된다는 데 있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덕의 습성(예: 사랑할 수 있는 습성)들을 획득하는 거기에 있다. 습득덕의 획득은 완덕 자체의 획득이 아니라 보다 높은 완덕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³²⁾ 완덕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습득덕의 종류는 다양하다. 우선 본고에서는 방 신부가 제시하는 덕목을 살펴봄으로써 완덕에로의 지향적인 덕들이 무엇인지 밝혀 보고자 한다.

2. 방유룡 신부의 덕목들

사도 바울로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

30) Josef de Guibert, *Documenta ecclesiastica christianae perfectionis studium spectantia*, (Roma: Gregorianum, 1931), n.266.

31) 전달수, 앞의 책, 6510-6511쪽.

32) K. Rahner, *Theological investigations*, 정대식 옮김, 『영성신학 논총』,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1), 125-126쪽.

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1테살 1,3)라고 대신덕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세 가지 덕은 신앙생활을 위한 원리이고 다른 모든 덕들보다 가장 우위에 놓는다.

방 신부도 모든 덕 중에 대신덕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덕은 초자연 덕이며 사추덕의 자리를 잡는데 있어서도 교회의 가르침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덕에 복이 들면, 죄에는 화(禍)가 미친다네.

방위(方位)가 기점(基點)이 동서남북이면, 덕이란 지(智), 의(義), 용(勇), 절(節)이요,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가 있듯이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듯이

자연계가 있다면, 그는 초자연계의 암시가 아닐까?

초자연계가 있다면 그 가는 길도 있을지니

그는 신(信), 망(望), 애(愛), 삼덕(三德)이요, 복음삼덕일세,

복음삼덕은 통달하는 신속로(迅速路)요, 점성에서 찾아낸 길이요,

신, 망, 애, 삼덕은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초성덕(超性德)이요,

.....

본연의 인지(人智)를 지나서, 신지(神智), 신비에 드는 길이다.(영가 15편)³³⁾

위의 영가에서 신(믿음), 망(희망), 애(사랑)는 초성덕이라는 내용이 돋보이고 있다. 초성덕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갖는 기본적 덕이며, 직접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는 덕임을 방 신부는 묘사하고 있다. 또한 윤리덕인 사추덕을 제시한 점은 인간의 심신을 바로 잡기위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윤리덕은 智, 義, 勇, 節이요, 心身을 바로잡는 中樞요.”(영가 35편)³⁴⁾에서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덕에서 덕으로 올라가면 은총의 강물이 흐르는 도다.”라고 영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상의 은혜를 마음 깊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생전에 영가를 지어 노트나 종이 곳곳에 기록하였던 것이다.³⁵⁾ 그 중에서 특히 하느님의 은사인 성령의 일곱 가지 은혜를 ‘성신칠은’(聖神七恩)으로 나타내고 있다.

모든 덕이 만발하고, 복음삼덕 세 송이가 활짝 피어,

명량한 미소가 흐르고, 만복이 맺히도다.

이 빛이 만복의 빛이니, 세복(世福)이 모여드는 도다.

성신칠은(聖神七恩)이 내리는 길이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길이요,

임의 사랑이 오가는 길이요, 사랑하는 영혼이 오르는 길이다. (영가 5편)³⁶⁾

33) 김옥희 편, 『영혼의 빛』, (서울: 대화출판사, 1980), 64쪽.

34) 위의 책, 95쪽.

35) 원본은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에 위치하고 있는 ‘방유룡 신부의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순교복자 성직 수도회에도 상당 부분이 보관되어 있다.

36) 위의 책, 40쪽.

여기에서 방 신부는 “모든 덕이 만발하고”라고 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덕행이 풍겨나기를 염원하고 있다. 즉 “용모에는 덕이 꽃핀 미소요, 태도는 찬미를 자아내는 음을 일세”(영가 78편)라는 점을 보아 그가 얼마나 덕을 닦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내면의 덕이 외면으로까지 풍겨지며, 다스려지는 덕을 지향했던 것이다. 방 신부는 윤리덕과 대신덕 외에 여러 가지 덕을 추구했음을 그의 영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덕만능, 덕문, 덕중 덕, 덕성, 영원한 덕, 만덕, 덕능, 향신덕, 의덕, 대덕, 유덕, 선덕, 복음 덕, 완덕오계 등이 있다. 그의 모든 개별 덕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뜻에 중심을 둔 사랑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덕으로서 진실한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하시고 강복하소서…말씀대로 살고자 노력 할 적마다 하느님의 빛과 힘이 내리나이다. 그 빛으로 하느님께 친근하고, 그 힘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나이다.”³⁷⁾ 다음의 영가에서 방 신부가 추구했던 인간 됨됨이의 모습이 ‘열두 덕’에 나타난다. 이는 영가로 대신해서 열어 보이고 있지만 그는 참으로 덕을 사랑하며, 덕을 찬양했고, 덕에 의해 자신도 놀라운 전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열두 덕〉은 꽃피고 열매 맺었네.

인내, 사랑, 기쁨이요, 평화, 인자, 선심이요,

성실, 항구, 온순(溫順)이요, 단정, 정조, 순결이로다.

어찌하여 세상은 이를 모르고 헛된 일에 헤매는지!(영가 74편)³⁸⁾

덕이 높거나, 덕이 깊거나, 덕이 많은 사람은 역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빛을 더욱 더 발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방 신부는 노래한다.

무죄하면 맑아지고, 제욕(制慾)하면 빛이 나는 도다.

하늘에서 오시는 빛은, 지극히 복된 빛이니,

이 빛이 비치는 곳에, 거룩한 사랑이 깃들고.(영가 5편)³⁹⁾

무죄하고 제욕하려면 단순히 어찌다가 한 번 행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포괄적인 덕을 습득해야 한다. 덕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경향과 능력을 제공해주는 습성이다. 그러므로 덕의 가치에 기울어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덕의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의 정신적, 감각적 본성과 감

37) 방유룡 신부,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형제애, 2003), 284쪽.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는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의 친필로 되어있던 영가를 한데 묶어 책으로 출판했다.

38) 김옥희 편, 앞의 책, 160쪽.

39) 위의 책, 40쪽.

정을 제어함으로써 자기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선을 쉽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 완덕을 향한 수덕은 하느님의 사랑에 중심을 두고 있기에 그 사랑과 반대되는 죄와 사욕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 신부는 죄와 사욕을 물리치는 침묵의 필요성을 수덕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꼽고 있다.

3. 침묵을 통한 수덕교육

방 신부는 침묵을 수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완덕으로 가는 지침이라고 설파한다. “침묵이 완덕으로 가는 지침이면, 대월은 천리를 내다보네.”⁴¹⁾ 그는 이 침묵을 크게 외적침묵, 내적침묵, 영혼침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외적침묵

영혼의 기능들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능력인 은사에 자유의 지로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이 협력이란 세상의 무질서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노력이 제대로 훈련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방 신부는 외적침묵을 인간 육신의 외면적인 측면, 즉 이, 목, 구, 비, 수족의 동작으로 보며, 이를 오관침묵과 동작침묵으로 나누어 알려주고 있다. 인간의 오관은 외계(外界)와 관계를 맺는 접촉도구가 된다. 또한 오관은 하느님과 생생한 관계 안에 통합되고 제 기능을 본래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귀, 눈, 입, 코, 손과 발을 조절해서 침묵시켜야 한다는 것이 방 신부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인간 육체의 외면은 이목구비, 수족이지만 그것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눈의 동작이 시(視)니 눈은 시(視)로 현상을 보고
귀의 동작은 청(聽)이니 귀는 청(聽)으로 소리를 듣고
코의 동작은 후(嗅)니 코는 후(嗅)로 냄새를 맡고
혀의 동작은 미(味)니 혀는 미(味)로 맛을 알고
수족은 피부의 대표로서 동작은 촉(觸)이니
수족은 촉(觸)으로 한온(寒溫), 강유(剛柔), 건습(乾濕)을 구별하는 도다.⁴²⁾

위의 영가에서 인간 육체의 감각적 인식에 대한 동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간은 육체를 통하여 영혼을 알게 된다. 육체의 여러 기관이 영혼과 관련되어 그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묘사된 수많은 성경구절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때때로 인격전체를

40) K. H. Peschke, 앞의 책 1권, 446쪽.

41) 김옥희 편, 앞의 책, 167쪽.

42) 방유룡, 앞의 책, 64쪽.

가리키는 영혼을 뜻하기도 한다.”⁴³⁾ 육체의 외적인 기능들이 감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섯 개의 외관 전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육체적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만큼 사물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좋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더 강력한 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이것은 영혼의 기능인 이성적 작용을 위하여 감각적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에서 인식한 지식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⁴⁵⁾ 다음의 내용을 우리 자신이 사실로 실행해보는 경험을 갖는다면 어떠할까?

이런 맥락에서 방 신부는 표현과 동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용모, 언사, 태도를 성화(聖化)하라고 했다. 침묵은 단지 억제하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오관을 아름다움과 성화의 방향으로 수덕할 것을 촉구하였다. 용모에는 명량과 미소로 평화를 자아내며, 언사에는 고운 말을 사용하여 불만과 거친 감정의 말을 삭히며, 태도에는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여 침착과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침묵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수덕이며 영혼의 부자라는 것이다.⁴⁶⁾ 즉 외적 침묵은 오관의 부정적인 측면을 삼가하고 제어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외적 행위의 성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외적침묵의 수덕교육은 오관의 기능을 성화시키고 아름답게 다스리는데 있다. 오관의 기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여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통합되도록 한다는데 육신외적침묵의 핵심적 수덕의 이유가 담겨있는 것이다. 방 신부가 “외적 행위를 성화할 것”(1961년 6월 20일 강론)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외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내적침묵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내적침묵

방 신부는 내적침묵을 육신내적침묵이라 하고, 그 침묵이란 ‘사욕’을 억제하고 ‘분심잡념’을 물리치는 것이며, 침묵을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하여 무사(無邪), 무욕(無慾), 무아(無我)가 되는데 있음을 역설한다.(1976년 6월 28일 강론) 방 신부는 침묵을 사욕에서 나오는 모든 동작, 표현, 생각, 의지를 없애는 수련을 망라한 것으로 이해하며, 침묵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위한 필수조건으로 포함시킨다. 방신부의 영성에 의하면 침묵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⁴⁷⁾ 방신부가 말하는 내적침묵에서 억제해야 할 사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악마가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것으로서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라고 한다.(1975년 5월 29일 강론) 사욕에서 나오는 죄가 문제인 것이다. “죄는 거의 언제나 내적 상태를 가리키고 하느님의 은총과 그 요구

43) Albert Gelin, *L' homme selon la Bible*, (Paris: Editions Liger, 1968), p.9.

44) Paul Nash, *The educated man*, 성기산 옮김, 『교육받은 사람』, (서울: 집문당, 1995), 177쪽.

45)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인간교육과 규범』, 신학과 사상학회 편, 『가톨릭 신학과 사상』,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219쪽.

46) 김옥희 편, 앞의 책, 625쪽.

47)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영성과 점성정신』, 『순교의 맥』, 제 202호 (서울: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2005), 34쪽.

에 반대하는 것이다.”⁴⁸⁾ 사육에서 나오는 죄가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향주삼덕(대신덕)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희망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은 모두 윤리덕의 영혼으로서 현존한다. 이 덕들 중에 사랑은 모든 덕을 포함한다. “덕은 사랑으로 가나니 사랑이 제일이로다.”(영가 73편) 사랑받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애덕이다. 그러면 애덕을 거슬리는 죄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용별로 요약해 보자.⁴⁹⁾

증오: 덕을 뒤집어엎는 근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증오는 그 출발점이 된다.

게으름: 이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치명적인 죄이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이 슬픔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질투: 다른 사람의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질투는 애덕에 반대되며, 불평이나 증오 같은 다른 죄들의 근원이 되므로 치명적인 죄이다.

불화: 마음의 결합인 일치에 반대한다. 불화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과 허영의 산물이다.

논쟁: 대화 안에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논쟁은 다른 사람 밑에 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의 산물이다.

이교(離敎): 마음의 분열이며 애덕의 결합과는 반대된다.

싸움: 마음 속 깊이 쌓아두는 증오보다는 오히려 복수를 원하는 분노의 산물이다.

반란: 다수의 평화와 일치를 거부하는 일종의 특수한 죄다. 정의와 공동선을 반대하는 반란은 중대한 종류의 죄이다.

불명예: 영적 여정 안에서 파멸을 가져오는 옳지 못한 사건이나 말이다. 이웃을 비방하여 죄스럽게 하는 불명예는 형제애를 거슬리는 특수한 죄이다.

죄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사육에서 죽어야 한다. 그 방법은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1959년 5월 24일 강론)고 했듯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육에 붙잡혀 있는지 성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육을 침묵시키는 것은 온갖 욕심과 분심잡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덕을 쌓아야 한다.

제욕수덕(制慾修德)에 덕문이 서고, 덕문에 복이 모여 든다면

어려움은 용기가 되어 선으로 선으로 내닫는 도다.

완덕은 임의 뜻하신 바니 ‘너는 나를 지어라.’⁵⁰⁾

48) Piet Schoonenberg, *Theologie der sünde*, 조정현 옮김, 『인간과 죄』, (왜관: 분도출판사, 1978), 34-35쪽.

49) Dal Sasso-Coggi, 앞의 책, 254-259쪽.

50) 방유룡, 앞의 책, 60쪽.

위의 영가에서 내적침묵에 관한 방 신부의 표현 속에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수덕을 하려면 모든 욕을 끊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 물론 어려운 수련이겠지만 윤리덕 중에 하나인 용덕으로서 극복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둘째, 수덕을 하면 복이 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덕에서 덕으로 올라가면 은총의 강물이 심복에 흐르는 도다.”(영가 6편)라고 하듯이 하느님의 은혜가 수덕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표현이 특이하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수덕을 통해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음으로 애주애인에 힘써야겠다. 셋째, 완덕은 우리 자신의 원의가 아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너는 나를 지어라.’하고 수덕의 차원에서 자신의 온전한 봉헌을 표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적 침묵에서 분심잡념을 물리칠 것을 방 신부는 열어 보인다. 분심잡념은 세속적인 인(人), 사(事), 물(物), 현상(現象)에 집착하여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분심잡념은 우리의 오관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욕대로 보고, 말하고, 듣고, 추측하고, 상상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분심잡념의 결과는 불안, 고통, 우울, 분노, 회피 등이 생겨 하느님을 뵙는 수덕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여기에 대해 방 신부는 그 방비책으로 침묵의 수덕에 전념할 것을 제시한다. “침묵의 절정은 만덕(萬德)의 완결이요, 여기가 영원한 안식이로다.”(영가 85편) 그리고 “침묵에서 꽃이 폈네, 칠색이 영롱한 만덕의 꽃이 폈네.”(영가 87편) 그는 침묵을 만덕의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덕하는데 침묵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침묵은 완덕에 이르는 길로서 수덕을 해야 할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느님께서서는 평화롭고 사욕이 없는 영혼 안에서만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⁵¹⁾

3) 영혼침묵

영혼의 침묵은 이성과 의지의 침묵이니
 이성은 양심을 조명하여 부정과 사기를 몰아내고,
 의지는 선택하는 자유이니 양심대로 가리고 물려야 하리로다.
 양심이 꺼릴 때는 자제자경(自警自制)함이요,
 의지는 선택이니 사후 뉘우칠 바를 할까 삼감이로다.(영가 72편)⁵²⁾

영혼의 기능에는 이성과 의지가 있다.⁵³⁾ 이성의 기능에는 관념, 추리, 판단, 기억, 양심이 있고, 의지의 기능에는 자유가 있다. 만약 이성이 사욕에 의해 본래의 기능을 잘못 사

51) Jean de la Croix, *Vie et oeuvres spirituelles*,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 옮김, 『잠언과 영적 권고』,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1), 44쪽.

52) 김옥희 편, 앞의 책, 156쪽.

53)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인간교육과 규범』, 앞의 책, 216-225쪽. 여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용한다면 바른 개념, 바른 판단, 바른 양심 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방 신부는 이성침묵과 의지침묵을 통해 영혼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이성침묵은 이성을 밝혀 양심을 따르는 것이 이성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방 신부는 진술한다.(1970년 5월 29일 강론) “양심은 하느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이며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사목현장 16항)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혼침묵은 양심을 따라가는 수덕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지의 기능인 자유도 사욕과 분심잡념을 반대하여 하느님의 덕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의지는 선을 선택하여 최선을 누리고 즐기는 도다. 의지가 인간성의 중추로다. 참다운 인간성은 여기 있도다……의지의 동작이 자유니, 의지는 자유로다.”⁵⁴⁾ 방신부가 의지의 사용에서 참다운 인간성이 여기 있다고 한 점이 돋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참다운 인간성은 의지침묵으로 형성될 수 있겠다. 교육에서는 참다운 인간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인간성을 양성하려면 방 신부의 가르침대로 우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수덕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의식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초월적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으며, 이러한 것이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면서 동시에 의무로 주어진다.⁵⁵⁾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분의 뜻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덕교육이 요청된다.

침묵을 통한 수덕교육은 인간의 오관을 사용하여 영혼의 이성과 의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일깨우는 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극히 커다란 가능성과 적은 현실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데 있다.”⁵⁶⁾ 인간은 발달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성정신으로 수덕에 임한다면 인간의 적은 현실성은 훌륭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덕교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⁵⁷⁾

첫째, 수덕 목적을 설정하는 문제: 교육은 목적이 있는 활동이다. 어떤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육성하려는 활동이므로 수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맞게 먼저 수덕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는 목적으로 ‘애주애인’이라는 덕목을 수덕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외에 교육이 목적으로서 육성하고자하는 행동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또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교육목적의 기술에 어떤 뜻있는 통일을 기해야 한다.

이런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블룸(Bloom) 등의 교육목적 분류론이 있다.⁵⁸⁾ 그는 교육목

54) 방유룡 앞의 책, 188-189쪽.

55) 서병창, 『도덕적 행위에서 이성과 욕구의 문제』, 한국가톨릭철학회 편, 『가톨릭철학』,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2), 210쪽.

56)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91), 48쪽.

57) 위의 책, 78-81쪽.

58) B. S. Bloom,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New

적의 영역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체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인지적 행동에 필요한 개념이나 개념능력의 단순성-복합성의 차원에 따라 여섯 가지로 인지적 행동유목(類目)을 분류하였다. 즉 지식, 이해, 응용, 분석, 종합, 평가이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주로 내면화의 원칙으로 개인의 심층적인 특성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감수(感受), 반응, 만족, 가치화, 조직화, 성격화이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두루 섭렵하여 교육의 목적을 설정한다는 다는 것은 굉장한 교육적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수덕교육의 목적 설정에도 세 가지 영역을 고려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수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경험을 선정, 계획, 운영하는 문제: 수덕목적에 설정되면 그 다음에 교육의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간다. 즉 수덕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학습경험을 하게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교육 이론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중심과정이 있으며, 교육 기술이 가장 전문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 어떤 교육상황을 꾸며서 어떤 학습경험을 하느냐가 중심과제이다. 이는 교육상황의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 변인,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습경험은 수덕자의 개인적 특징인 지적 수준, 가치관, 정체성, 신관,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문제: 어떤 덕목을 실천했는데 그 실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정보의 재투입 혹은 피드백의 작용은 수덕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프랭클린(Franklin)은 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덕의 도표를 만들어 매일 기록하였다. 그는 작은 수첩을 만들어서 그 여러 덕의 하나하나에 한 페이지씩 배당시켰다. 각 페이지에 붙은 펜으로 줄을 그어서 세로 칸을 길게 일곱 개 만들고, 제일 위에 가로로 한 칸을 만들어 각 요일을 넣었다. 다음에 이 세로 칸들 위에 가로 칸을 열 세줄 긋고, 그 각 줄의 처음에 여러 덕목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각 칸에 그 날의 덕에 관해서 범한 과실을 검사하여 검은 점으로 적어 넣었다. 그는 이런 덕을 차례로 엄중히 평가하였다.⁵⁹⁾ 평가를 위한 덕의 도표는 그 덕의 실현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기록하여 재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방 신부는 교육학적인 체계로 수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전인적인 차원을 수렴하여 수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사, 인, 행을 총동원하여 전인적으로 수덕하는 길을 열었다.

York: Longmans Green, 1956); D. R. Krathwohl,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1964).

59) B. Franklin,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Grolier Classics(Classics Appreciation Society Condensations), pp.214-215. 프랭클린 외에 다른 사람도 덕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 평가를 하겠지만 책으로 출판된 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 언, 행에 꽃피우고…이목구비 보호하세. 미소 띤 꽃핀 태도…모든 덕에 꽃이 폈네…침묵이 낸 길이요… 주의 눈에 들었도다…희생정신으로 앞에 단쳐오는 만고를 건디고… 영혼 육신 다 바치고…무아는 하늘에 군림하네.”(영가 100편)

IV. 맺는 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정신없이 떠밀려가는 현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우리 자신만이나, 우리나라만을 바라볼 수 없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감안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영원한 진리를 탐색하며,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은 바로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가 그의 일생을 통해 수덕생활에 매진하면서 영원한 진리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한 수도사제(修道司祭)였다. 본고에서는 그가 남긴 많은 덕목들 중에서 특히 수덕과 관계되는 침묵을 고찰하였다. 그가 말하는 침묵의 수덕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로서의 침묵이었다. 그러나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없이 가만히 있음의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 피정, 묵상, 내적 성찰 등을 깊이 동반해야만 한다.

침묵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영혼을 알 수 있고, 무질서한 죄, 사욕, 분심잡념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삶의 모든 방면에서 덕목들의 작용이 침묵의 방법에 의해 완성되어간다는 것을 방 신부는 강조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 “초자연적인 은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만 보이는 덕이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은 초자연적 은총에 의해서 더욱 완성될 수 있으며, 은총은 자연적 과정에 수시로 개입한다고 할 수 있다.”⁶⁰⁾

본 논문에서는 덕의 내용들과 그 덕을 실현하게 하는 수덕교육으로서의 침묵에 대해 논하였는데 방 신부는 침묵을 세분하여 외적침묵(이, 목, 구, 비, 수족, 동작)과 내적침묵(사욕, 분심잡념) 그리고 영혼침묵(이성, 의지)로 나누고 이를 한데 묶어 ‘침묵십계’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침묵십계를 수덕하는 동기는 전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뵈고, 하느님과 하나이고 싶은 열망이었다. 수덕교육에 대한 열망은 하느님의 모습을 아 인간에게 반영되는 애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방신부의 수덕교육이 모든 교육에 적용되어, 애주애인(愛主愛人)하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60) 서병찬, 앞의 글, 211.

참고문헌

- 김옥희 편, 『영혼의 빛』, 서울: 대화출판사, 1980.
- 박준양, 『성령론-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 서울: 생활성서사, 2007.
- 박준양, 『은총론-그 고귀한 선물에 관하여』, 서울: 생활성서사, 2008.
- 방유룡,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 백민관 엮음, 『Asceticism』,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백과사전(1)』(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 서병창, 「도덕적 행위에서 이성과 욕구의 문제」, 한국가톨릭철학회 편, 『가톨릭철학』, 제4호,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2).
- 이숙자, 『면형무아의 길』, 서울: 도서출판 순교의 맥, 2006년.
- 전달수, 「완덕」,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왜관: 분도출판사, 2002.
-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91.
-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영성과 점성정신」, 『순교의 맥』, 제 202호 (서울: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간, 2005)
-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인간교육과 규범」, 신학과 사상학회 편,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 59호,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 A. B. Charles., *Teologia spirituale*, 정제천, 박일 옮김, 『영성신학』,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 A. Nolan, *Jesus before christianity*,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0.
- A. Tanquerey, *Precis de theologie ascetique et mysique*, 정대식 옮김, 『수덕신비신학 4권』, 서울: 가톨릭 크리스찬, 2000.
- Dal Sasso Coggi, *Compendio della somma teologica di san Tommaso d'Aquino*, 이재룡, 이동익, 조규만 옮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 K. H. Peschke, *Christian ethics-moral theology in the light of Vatican II*, 김창훈 옮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Jean de la Croix, *Vie et oeuvres spirituelles*,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 옮김, 『잠언과 영적 권고』,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1.
- Josef Weismayer, *Zur geschichte und theologie christlicher spiritualität*, 전현호 옮김, 『넉넉함 가운데서의 삶-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와 신학』왜관: 분도출판사, 2003.
- Lacan, M. F., *Vocabulaire de theologie biblique*, 김영환 편, 「덕과 악습」, 『성서신학사전』, (광주: 광주가톨릭대학전망편집부, 1984).
- Paul Nash, *The educated man*, 성기산 옮김, 『교육받은 사람』, 서울: 집문당, 1995.
- Piet Schoonenberg, *Theologie der sunde*, 조정현 옮김, 『인간과 죄』, 왜관: 분도출판사, 1978.
- Andrea Gasparino, *Lord, teach us how to pray*, Cuneo: Movimento Contempativo Missionario, 1993.
- Bloom, B. S.,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New York: Longmans Green, 1956.
- Denzinger Scho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 fidei et morum*, Barcelona, Herder, 1973.
- Franklin, B.,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Grolier Classics, Classics Appreciation Society Condensations.
- Haring, B., *The law of christ*, vol. 1, Westminster: The Newman Press, 1966.
- James, A. W., "The body in spiritual practice: a new asceticism", *spiritual life*, 47, 2001.
- Josef de Guibert, *Documenta ecclesiastica christianae perfectionis studium spectantia*, Roma: Gregorianum, 1931.
- Krathwohl, D. R.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1964.

원고접수: 2008년 12월 2일 1차심사: 12월 12일 게재승인일: 12월 16일

연구자 소개: 최영희

- ① 전공: 교육학, 종교교육철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가톨릭교육, 수덕교육, 신앙교육, 종교심리
 - ③ 주요논저: 「방유룡 신부의 인간교육과 규범」, 「현대교육의 오류」, 「마리탱의 인간관과 휴머니즘」, 「마리탱의 신앙심과 종교교육」, 「성격이론과 교육의 과제」, 「방유룡 신부의 신앙과 점성정신」.
 - ④ E-mail: choists@yahoo.co.kr
-

Abstract

Virtues Education of Fr. Yoo-Ryong Bang

Choi, Younghei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e have to send forth the smell of virtue. Fr. Yoo Ryong Bang believes that blessings follow virtues, while calamities follow sins. A mind is clear without sin and the light appears when an evil desire is controlled. If we are unselfness, desireless and selfish, we can achieve unity Jesus. The point of a compass are east, west, south and north And the point of virtue are wisdom, justice, courage and temperance. The virtues are the express way of inside. Faith, hope and love are transcendental virtues. By which we believe in the Lord, hope of him and love of him. The three virtues of faith, hope and love are great, and the greatest of the three is the virtue of love.

The commandment are an external silence on which internal silence exerts an influence. What is inside ourselves is bound to be disclosed outward. To those who practice internal silence, the external looks calm and everything is interesting. The more silence our soul observes, the brighter the light shines. Virtue education is important for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 Transcendental virtue, Ethical virtue, Silence, Complete virtue, Ascetic, Virtues